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System Type on Adolescent Adjustment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진입강사: 全 貴 演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Gwee Yeon, Jeon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崔 備 佳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 Ko Ga, Choi

본 연구는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443명이었고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와 청소년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인변량분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균형가족의 청소년들이 극단가족에 비해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아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라는 가족체계의 두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가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 서 론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이며, 동성간의 관계보다 이성간의 관계가 부각되고, 개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며, 생활의 불균형과 역할혼동으로 정서적 변화가 생기는 등의 성장발달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위협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Dickelmann, 1976).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기의 적응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상담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심리적 장애를 보인 학생이 전체 학생의 31%로 나타났고 경계선상태에 있는 학생도 23%나 되어, 정신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학생은 전체의 반도 채 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 1983^{ab}).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서적 부적응 상태는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상태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성숙과 더불어 좀더 효과적인 적응방식을 습득하게 되면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일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이 일시적 부적응 현상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적 영역의 발달과업 즉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성적 충동이나 감정의 통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생애의 가치관 형성 등은 가족과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며(윤진, 1988),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가족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불안, 열등감, 우울, 긴장 등이 유발되어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문제등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한다(김소야자, 1987).

가족 또는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Walters & Stinnett, 1971; Hall & Lindzey, 1978; Walters & Walters, 1980; 유안진, 1985) 가정환경과 자녀의 제반 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가정환경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이를 크게 두가지로 대별해 보면, 그 하나는 가정의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조건으로서 가족원의 구성,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자녀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부모의 태도, 양육방식, 부모자녀관계 등과 같은 변인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2인관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2인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에 흔히 있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 사람의 주양육자-부 또는 모-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녀가 주양육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포함된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고 있어 각 개인은 가족체계의 한부분으로서 체계에 영향을 주기도하고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 사실이 무시되었다. 그러나 자녀도 한사람의

가족원이며 하나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모든 가족관계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가족체계의 개념으로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좀더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체계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Olson등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하나의 개념모델 속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Circumplex Model을 개발한 이래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자녀의 적응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비행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정신질환 청소년 등 주로 문제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하여 그 원인을 가족의 구조적 측면 뿐 아니라 가족체계유형에 초점을 두고 찾은 것이다(Druckman, 1979; Green, Kolevzon & Vosler, 1985; Friedman, Utada & Morrissey, 1987; 민하영, 1992).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점은 비행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등 문제청소년 유형만을 연구했다는 점이다.

2) 문제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Russell, 1979; Portner, 1981; Bell, 1982; Garbarino, Sebes & Schellenbach, 1984; Clarke, 1984;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 유순덕, 1987). 이러한 연구들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을 비교하는 특정집단 연구(ad hoc research)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두 가족집단간에 체계적 특성의 차이가 밝혀지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체계유형이 자녀의 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일반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으나(Olson등, 1983; Barnes & Olson, 1985; Tracy, 1990; 임용우, 1984; 고승자, 1985; 안양희, 1988; 홍성애, 1988; 민혜영, 1990; 한경미, 1990; 한상분, 1992) 이들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그리고 Wilson(1992)이 FACESII와 FACESIII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법을 개정함에 따라 과거 Olson의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한 결과를 보고했던 연구들은 새로이 제시된 방법에 의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체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족체계유형(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족체계유형

지난 20년간 가족이론과 가족치료 문헌에서 가족 기능에 대한 몇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모델들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된 차원 뿐 아니라 건전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차원을 개념화한다. 그 중 1980년대에 가족치료 문헌에서 우세하게 중요한 두개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가족기능에 관한 Beavers의 Systems Model(BSM)과 Olson의 Circumplex Model(OCM)이다.

이 두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분류하기 위한 유형론을 제공한다.

각각의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요인을 확인했는데 하나는 관계요인(relationship factor)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 혹은 적응성요인(change 또는 adaptability factor)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모델은 유사개념을 이용한 동등 모델로 보여졌다(Beavers & Voeller, 1983;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그러나 두 모델간의 관련성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인 탐색연구는 이 두개의 모델이 가족기능의 다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Green, Kolevzon & Vosler, 1985; Hampson, Beavers & Hulgus, 1988).

Green등은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는 모델이 가족 생활의 동일한 차원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어느 모델이 가족생활의 건강정도를 판단하는 데 보다 민감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서는 Beavers의 Systems Model과 Olson의 Circumplex model의 이론적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Beavers의 Systems Model

Beavers의 Systems Model(BSM)은 Beavers와 그의 동료가 일반체계이론을 가족생활에 임상적 연구적용을 하여 연역적으로 개발되었다. 초기에 이 모델은 청소년의 정신분열증과 그들 가족원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Beavers, Blumberg, Timken & Weiner, 1965). 연구를 거듭하면서 건강하고 잘 적응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뿐 아니라 정신분열적이고 신경성적 문제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연구했다(Lewis, Beavers, Gossett & Phillips, 1976; Beavers, 1977; Kelsey-Smith & Beavers, 1981; Beavers, 1981).

BSM은 Von Bertalanffy(1968)의 일반 체계이론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가족은 물론 개인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체계는 혼란스러운 역기능적 체계에서 엄격한 통제지향적 체계로, 보다 더 나아가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고 적응적인 체계 즉, 역량이 있는 체계로 나아간다"는 가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BSM의 주요한 차원은, '가족 역량(family competence)'에 대한 개념으로 가족의 구조, 유연성 및 역량을 다루고 있다. Beavers(1977)는 이 차원이 직선적이고 무한하다고 가정했다.

Beavers와 Voeller(1983)는 "가족이 보다 융통성있고 적응적일수록 보다 더 조정가능하고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며 기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역량이 있는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분화(differentiation)를 더욱 격려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적응력(즉, 변화)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가정한 Olson의 Circumplex Model과 대조적으로 Beavers는 가족적응성의 무한한 연속체를 가정했다. BSM의 두번째 차원은 Beavers(1977)가 가족양식(family style)이라 명명한 관계적 차원이다. 이 차원은 외부세계와 관련해서 가족이 가지는 패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Erikson(1963)에 의해 개발되어 Stierlin(1972)이 가출 청소년을 다룬 연구에서 활용한 구심성 가족상호작용과 원심성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다. 구심성 가족은 외부세계보다는 가족내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반면, 원심성의 가족은 가족내부에서 보다 외부세계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얻는다. Beavers(Beavers, 1977 ; Beavers & Voeller, 1983)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극단적으로 원심적이거나 중심적이지 않는 형태 즉, 균형적인 가족양식을 가진다.

직선적이고 수평적 차원으로 가족역량요인을, 곡선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으로 가족양식의 요인을 활용하여 BSM은 아홉가지 가족유형의 가족체계를 도식화했다(그림 1).

Beaver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가족유형을 임상적으로 규정하여 표현했다(Beavers, 1977, 1981 ; Lewis등, 1976 ; Beavers & Voeller, 1983). 부모나 자녀들의 개인적 기능에 대한 언급없이 현존의 가족체계를 묘사한 Olson과는 달리 Beavers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기능을 묘사했다. 9가지 가족유형은 가족기능 및 역기능의 정도에 따라 크게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 중간범위가족(midrange family), 경계선상의 가족(borderline family),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severely disturbed family)의 4가지 가족체계유형으로 나누어진다.

2) Olson의 Circumplex Model

가족기능에 관한 Olson의 Circumplex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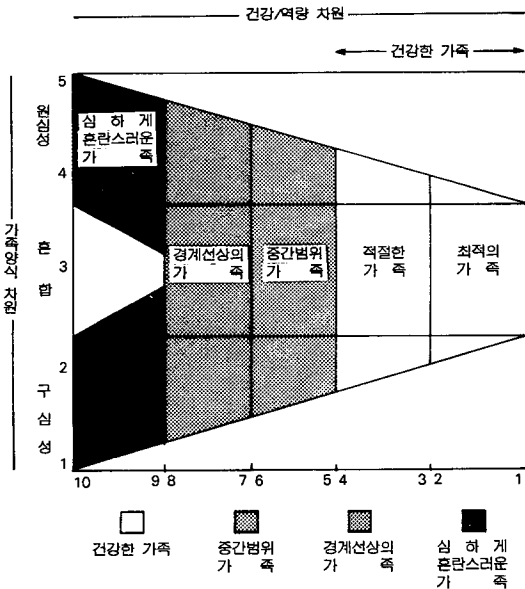


그림 1. Beavers의 Systems Model.

(OCM)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연구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기능에 관련된 문헌에서 제시된 50가지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귀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Olson등(1979, 1983)은 군집분석기법을 써서 가족기능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양방향성의 두개의 요인-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단방향성의 세번째 요인-가족의사소통-을 결정했다. 이 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차원은 가족과정 또는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여겨 상호조합을 이루는 유형론적 모델 즉 Circumplex Model을 발전시켰다. 의사소통은 모델에 직접 도식화되지 않고 다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Olson등(1979, 1983)은 가족체계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세가지 요인 중 응집성과 적응성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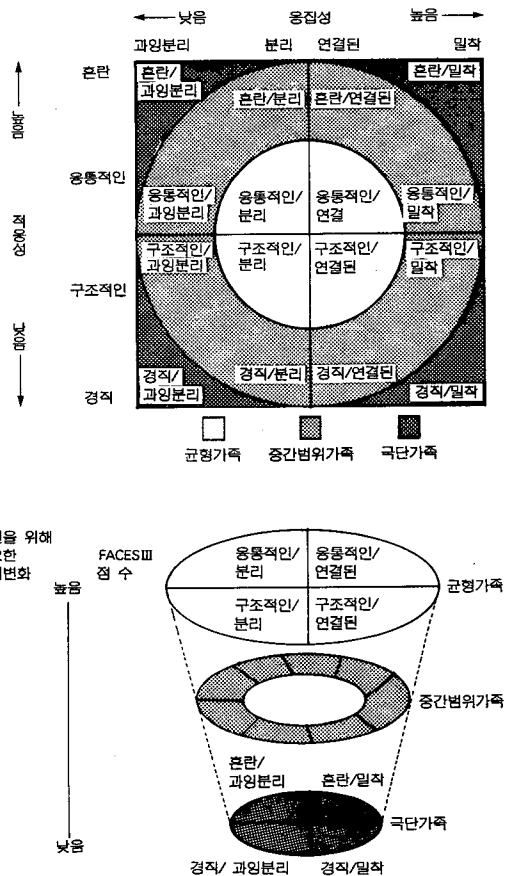


그림 2. Olson의 2차원적 Circumplex Model.

직교적이고 양방향성의 두 요인을 기초로 하여 16개 유형의 가족체계를 분류하고 최근에 이것을 3차원으로 도식화 했다(그림 2, Olson, 1993).

그러나 가족체계연구시에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16개 유형으로 자세히 분류하여 논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3종류의 가족체계로 나누어 체계유형을 연구하거나(Olson, 1985, Lavee & Olson, 1991), FACESⅢ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의 4종류로 가족체계를 나누어 연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92).

Olson의 Circumplex Model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과는 달리,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기능간의 관계를 양방향성, 즉 곡선적(curvilinear)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응집성의 축과 적응성의 축에서 각각 중간 부분이 건전한 가족임에 반하여 양극으로 갈수록 건전하지 못한 기능을 지닌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개의 모델(OCM과 BSM)은 모두 가족기능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임상적 실제 사이를 관련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 두 모델 모두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횡단적이고(cross-sectional), 거시적인 사정(macro-assessment)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가족기능의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고, 가족을 분류하려는 유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두개의 모델에 대한 초기 비교는 두 모델이 가족기능의 유사구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으나 경험적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보다 최근의 비교들(Beavers등, 1983; Green등, 1985; Hampson등, 1988; Lee, 1988)은 두 모델이 가족기능의 관계차원을 개념화하는 데는 동등하지만 가족 적응성의 개념화에는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Model 모두 가족성원의 건강과 병리에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두개의 중요한 가족 기능의 차원을 확인했다. 첫번째 차원은 관계 차원인데 이것은 OCM에서 가족응집성으로 그리고 BSM에서는 가족

양식으로 제시되었다. 두번째 차원은 변화차원인데 그것은 OCM에서는 가족적응성으로, BSM에서는 가족건강/역량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차원들 중 한가지에 대해서는 개념상의 일치를 보였다. Olson등(1983)과 Beavers(1977) 모두는 관계차원이 곡선적이거나 양방향성이라고 가정했다. Green등(1985)과 Hampson등(1988)의 연구는 관계차원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가족들은 가족체계와 구성원내에 손상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대한 경험상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 차원, 즉 변화의 차원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Olson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안정지향적 속성(낮은 적응성)과 변화지향적 속성(높은 적응성)이 잘 균형잡혀있는 가족이므로 안정성과 변화가 알맞게 이루어져 있는 가족이다. OCM에서 가족적응성은 가족체계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OCM에서의 적응성은 응집성처럼 곡선적이거나 양방향성이라고 가정된다. 너무 많은 변화(혼란)나 너무 적은 변화(경직성)는 역기능과 관련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Beavers는 적응성을 효과적인 가족 기능과 직선적인 관계로 본다. BSM은 적응성을 역량과 관련짓고 그것을 연속체상에 두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Green등(1985)이 확인한 주된 차이점의 하나는 OCM은 지난 반세기동안 가족치료문헌에서 나온 다양한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귀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OCM은 보다 강한 경험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BSM은 가족들을 임상관찰해서 연역적으로 개발되었고 BSM의 공인타당도와 준거타당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BSM을 임상적 모집단에 적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에 의해 얻어졌으므로 보다 더 강한 현상학적이고 임상적인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비임상적 일반가족임을 고려하여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의 유용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2.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Olson의 Circumplex Model의 기본 가설은 극단가족보다 균형가족들이 보다 적절하게 기능적이라는 데

있다. 즉,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만이 가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시험하려는 최초의 연구 중 하나는 Russell (1979)이 청소년 여아를 가진 비임상적인 31개의 가족을 연구한 것이다. '위기'에 직면하여 잘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수준이 적절한 반면에, 잘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이 극히 높거나 낮았다.

Portner(1981)는 가족치료 중인 청소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55개 가족을 117개의 비임상가족과 비교했다. FACES와 IPAC(Inventory of Parent and Adolescent Conflict)를 사용하여 가족기능과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비임상가족의 대부분은 균형가족에 속하는 반면, 임상가족은 극단가족에 속하며 특히 응집성은 과잉분리에, 적응성은 혼란된 수준에 있는 경향이 있었다.

비슷한 연구에서 Bell(1982)은 가출 청소년이 있는 33개 가족을 Portner(1981)연구의 통제집단인 117개 가족과 비교했다. FACES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비임상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이 적응성과 응집성 차원에서 보다 균형적인 반면에 가출청소년이 있는 가족은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이었으며 특히 응집성 차원에서는 과잉분리에, 적응성 차원에서는 혼란된 수준에 속해 있었다.

Garbarino, Sebe와 Schellenbach(1984)는 위험성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이 더 많은 문제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발견은 가족기능에서 극단의 수준은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개인 병리와 관계된다는 Olson의 가설을 지지했다.

Barnes와 Olson(1985)은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이전 연구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비임상적인 426개의 정상가족 내의 부모와 청소년기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했다. Barnes와 Olson은 균형가족이 극단가족보다 더 나은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검증한 결과,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의 지각을 합했을 때 균형가족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Rodick, Henggeler와 Hanson(1986)은 FACES를

사용하여 58개의 모자가족을 연구했다. 이중 절반은 소년범이 있는 가족이고 나머지는 범죄경력이나 정신병의 병력이 없는 가족이다. 소년범이 없는 가족의 대부분(68%, 29개 중 19개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균형수준을 보고했으며, 대조적으로 소년범이 있는 가족은 29개 중 2개가족(7%)만이 균형가족에 속했다. 범법청소년이 있는 가족의 대부분(29개 가족 중 17개가족)은 응집성 수준은 밀착에, 적응성은 혼란된 수준에 속했다. 이 연구 결과는 자기보고 자료 한가지만으로써도 범법 청소년이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구별하는데 매우 효율적임을 입증했다.

한편 국내연구로, 임용우(1984)는 정상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균형가족보다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했으며 유순덕(1987)은 39개의 임상가족과 117개의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기자녀의 지각을 통해 가족체계유형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Olson의 Circumplex Model이 정상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상분(1992)은 정상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 문화에 맞는 규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환경미(1990)는 OCM과 달리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체계유형의 자녀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므로 가족원간의 심리적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족체계의 변화능력을 키워나갈 것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홍성애, 1988)과 건전한 성격형성(고승자, 1985)에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활용되었다. 가족체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객관

적인 정보보다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Giuli와 Hudson(1977)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행하는 행동 및 태도를 부모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사실 Ausbell, Balthazar, Rosenthal, Blackman, Schoont 그리고 Welkowitz(1954)는 자녀의 발달은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로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가족경험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가족경험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더 큰 결정요인이라고 제안한다. 이 원리를 확대해서 McDonald(1977)는 청소년의 지각이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각이 객관적인 측정과 꽤 일치하므로 청소년의 지각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체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청소년의 적응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 중에서 무선표집한 4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가족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와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평가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Ⅲ(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Ⅲ: FACESⅢ)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Ⅲ은 Circumplex Model의 두개의 주요한 차원(응집성과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FACESⅢ의 첫번째 장점은 각각 111개 항목과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FACES와 FACESⅢ에 비해 짧다는 것이다. 두번째 장점은 FACESⅡ의 경우($r=.65$)와는 달리 적응성과 응집성의 두요인이 직교한다는 점($r=.$

03)이다. 세번째 장점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과 전체척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r=.00$)는 점이다.

가족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은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관심 등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들에 의해 측정된다.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측정된다.

본 연구자가 FACESⅢ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킨 결과, Olson등(1985)이 제안한 대로 문항이 가족응집성요인과 적응성요인으로 묶어졌으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39.8%이었다.

Olson등(1982)은 2,412명을 대상으로 FACESⅢ의 응집성 및 적응성 요인과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는 .77, .62, .68이라고 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응집성요인 및 적응성요인과 전체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5, .74, .86이었다.

한편, FACESⅢ은 원래 Olson의 Circumplex Model에서 제시된 양방향성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였으나 FACESⅢ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Circumplex Model의 곡선적인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Beavers & Voeller, 1983; Green등, 1985; Fristad, 1989; Perosa & Perosa, 1990). 즉 FACESⅢ의 Likert 5품등 척도의 문항들은 역기능-기능-역기능의 곡선적인 측정치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역기능-기능의 직선적인 측정치를 내기 쉽게 되어 있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지나치게 높아 역기능적인, 밀착가족과 혼란가족을 FACESⅢ로는 구별해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FACESⅢ의 직선적 측정치로 인해, FACESⅢ를 사용해서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고자 할 때는 16개유형으로 분류하는 종전의 4~4분류방법보다는 새로이 제안된 3차원적(3-D) Circumplex Model에 의한 분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제안하고, 균형가족은 FACESⅢ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이며 극단가족은 두 측정치가 모두 낮은 가족이라고 했다(Olson, 1991).

최근에 Olson등(1992)이 새로이 제안한 FACESⅢ에 의한 집단분류방법과 명명방법에 의하면, 응집성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집단, 분리집단, 연결된 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적응성 수준에 따라서는 경직집단,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은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으로 나뉘어진다.

2) 청소년의 적응성척도

(1) 불안척도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 &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나누어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각각 1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에 각각 2개의 요인씩 추출되었다. 상태불안척도의 첫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40.3%를 설명하며 '현상태의 불안감'을,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0.7%를 설명하며 '현상태의 안정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역으로 계산된다.

특성불안 척도의 첫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1.9%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안정감'을,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2.1%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불안감'을 나타낸다. 역시 첫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역으로 계산된다.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89과 .84이었다.

(2) 우울척도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Faulstich, Ca-

rey, Ruggiero, Enyart와 gresham(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1985)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하여 2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6.2%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무력감'으로 명명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6.3%를 설명하며 '외로움'으로 명명되었으며 세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5.8%를 설명하며 '무가치감'으로 명명되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82, .78, .81이었다.

(3) 자아존중감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자아존중감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제안한대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50.6%이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9~.90이었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은 모두 Likert 5품등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절 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500명을 무선표집하여 1993년 5월3일부터 5월7일 사이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89부였고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거짓척도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와 편부모 자녀 및 시설아의 자료를 제외한 44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Olson등(1992)이 제시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다변인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Olson등(1992)이 제안한 FACESIII에 의한 집단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이 나타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사용하여 각 수준별 집단을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별

집단은 표 1과 같다.

가족체계유형은 표 1에서 얻어진 가족응집성수준(1~8)과 가족적응성수준(1~8)을 합한 것을 2로 나누어 얻은 점수로 집단을 분류하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균형된 가족과 중간범위가족의 수가 많은 편이고 균형가족과 극단가족의 수는 적은 편이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11.76,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 유의차가 있는 변인에 대해서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에서는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균형가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다른 집단간에는 $.01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균형가족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이 낮은 불안을 나타냈으며 그다음 순서는 중간

표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별 집단 분류

수	준	1	2	3	4	5	6	7	8	
가족응집성점수	10-18	19-25	26-28	29-32	33-35	36-39	40-44	45-50		평균 : 32.56 표준편차 : 7.01
가족적응성점수	10-15	16-21	22-24	25-27	28-30	31-34	35-42	43-50		평균 : 27.96 표준편차 : 6.06

표 2. 가족체계유형분류

수	준	1-2	3-4	5-6	7-8
가족체계유형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	
빈도(%)	60(13.54)	165(37.25)	189(41.76)	29(6.55)	

표 3.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체계유형	.64	11.76	18.00	1228.02	.00

범위가족이었고 극단가족이 불안이 가장 높았다.

우울에서는 중간범위가족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균형가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이 낮은 반면에 극단가족이 가장 높은 우울을 나타내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극

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극단가족과 중간범위가족이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순은 약간 균형적인 가족이었고, 균형가족이 가장 높은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표 4.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df=3, 439)

종 속 변 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17566.51	144511.79	5855.50	329.18	17.79	.00
우울	7144.43	112728.06	2381.48	256.78	9.27	.00
총체적 자아존중감	623.26	8102.59	207.75	18.46	11.26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1651.06	17501.23	550.35	39.87	13.80	.00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7578.02	16773.76	2526.01	38.21	66.11	.0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72.14	12539.73	24.05	28.56	.84	.47

표 5.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 속 변 인	집 단 (평균)	중간범위가족	약간균형적가족	균형가족
불안	극단가족 (108.20)	5.32**	6.28**	5.00**
	중간범위가족 (94.24)	-	2.04*	3.13**
	약간균형적가족 (90.51)	-	-	1.85
	균형가족 (83.55)	-	-	-
우울	극단가족 (74.60)	3.18**	4.27**	3.99**
	중간범위가족 (67.09)	-	1.67	2.98**
	약간균형적가족 (64.37)	-	-	2.08*
	균형가족 (57.59)	-	-	-
총체적 자아존중감	극단가족 (17.70)	1.22	3.48**	4.18**
	중간범위가족 (18.47)	-	3.59**	4.78**
	약간균형적가족 (20.07)	-	-	2.43*
	균형가족 (22.21)	-	-	-
사회적 자아존중감	극단가족 (26.37)	.83	2.92**	4.98**
	중간범위가족 (27.19)	-	2.99**	5.78**
	약간균형적가족 (29.13)	-	-	4.44**
	균형가족 (34.45)	-	-	-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극단가족 (20.72)	5.40**	10.94**	10.17**
	중간범위가족 (25.90)	-	7.80**	8.68**
	약간균형적가족 (30.89)	-	-	4.69**
	균형가족 (36.48)	-	-	-

*P<.05 **P<.01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모든 집단간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 순으로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은 균형가족의 청소년들이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을 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낮은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은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균형가족에 비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비행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과 같은 문제청소년을 둔 가족과 문제청소년이 없는 일반가족을 비교한 연구(Russell, 1979; Portner, 1981; Bell, 1982; Garbarino 등, 1984; Rodick 등, 1986; 유순덕, 1987)에서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을 지지했던 결과와 일치하며,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고승자, 1985),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홍성애, 1988), 아동의 자아존중감(한경미, 1990; 한상분, 1992)에 관한 연구를 통해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Olson 등(1992)이 FACESII와 FACESIII의 점수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법을 개정한 것에 따르면, 과거의 분류법에 의해 균형가족이나 중간범위가족으로 분류된 가족은 중간범위가족이나 약간 균형적인 가족으로 분류되며, 과거에 극단가족으로 분류된 가족은 점수에 따라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극단가족 등 다양하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본 연구결과는 일반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과거 Olson의 Circumplex Model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고승자, 1985; 홍성애, 1988; 한경미, 19

90; 한상분, 1992)과 일치되는 경향이며 문제청소년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연구한 결과들(Russell, 1979; Portner, 1981; Bell, 1982; Garbarino 등, 1984; Rodick 등, 1986; 유순덕, 1987)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표집대상의 차이점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비행, 약물복용, 가출, 정신질환 등의 명백한 증상을 나타낸 문제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 대상은 일반청소년이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역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정상청소년 중에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자가 45.9%이며(Otto, 1976), 미국에서 정상청소년과 정신과 외래환자를 비교한 Masterson(1968)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불안이나 우울이 정상 청소년에게서도 환자집단 못지 않게 나타났다고 보고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청소년의 25% 정도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된 것(김광일 등, 1983^{ab})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을 표집대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추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응집성수준과 가족적응성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서 보인 유의차에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높은 응집성수준을 보인 매우 연결된 집단의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낮은 가족적응성 수준을 보인 경직집단의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균형가족이 청소년의 적응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가족체계유형 중 균형가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이다.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성원들 상호간에 근접성이 높으며, 또한 가족이 상황적이거나 발달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해 나갈수록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을 적게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의 여러 속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원사이 심리적으로 유대가 적고 가족구성원들이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변화에 적응적이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심리적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족체계의 변화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에는 가족체계적 접근방법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과정에서의 역기능은 가족체계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나 부적응 행동, 신경증적 장애 등을 청소년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가족내부의 역동적 인간관계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443명이었고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와 청소년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인변량분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균형가족의 청소년들이 극단가족에 비해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아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라는 가족체계의 두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가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하고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임상가족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현 추세로 보아,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교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체계유형에 대하여 가족내부인인-청소년-의 평가만을 활용하였으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가족체계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특정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임상이나 가족연구가와 같은 외부관찰자에 의한 관찰이 병행된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 중 청소년기자녀를 연구대상으로하여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기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적응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네째,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 중 최소한 한명이 청소년기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바람직한 가족체계유형이 다르고 가족원의 생활만족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발달단계에 따라 종단적인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는 Olson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일부 행해졌으나 다른 가족체계모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Olson의 모델과 타 모델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모델들이 똑같이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모델이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평가하는 데 더 민감하는지를 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개발 및 기준설정이 우선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1) 고승자(1985).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a).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I). 정신건강연구 1, 1-40.
- 3)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b).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II). 정신건강연구 1, 41-50.
- 4) 김봉소(1976). 청년기의 자기개념, 사회적 태도 및 적응에 관한 일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5) 김소야자(1987).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 수문사.
- 6) 김정택(1987).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8) 박초아(1987).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9) 배은경(1988).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선일선(1981). 생활사건변화와 불안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1)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유안진(1985). 아동환경.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13)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30.
- 14) 윤진(1988).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문제. 이춘재 등, 청년 심리학(PP.177-200).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15) 이상로·변창진(1969). 적응진단검사. 중앙직업적성연구소.
- 16) 임용우(1984).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17)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 기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18) 정원식·이상로·이성진(1979).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19)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20) 한경미(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1)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 유형. 아동학회지 14(2), 145-160.
- 22)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3) Ausbel, D. P., Balthazar, E.E., Rosenthal, I., Blackman, L.S., Schoont, S.H. & Welkowitz, J.(1954). Perceived parent attitudes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ego structure. *Child Development* 25(Sept), 173-184.
- 24) Barnes, H.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25) Beavers, W.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 Brunner/Mazel.
- 26) Beavers, W.R.(1981). A systems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299-307
- 27) Beavers, W. R., Blumberg, S., Timken, K. R. & Weiner, M. D.(1965). Communication patterns of mothers of schizophrenics. *Family Process* 4, 95-104.
- 28) Beavers, W. R. & Voeller, M. N.(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29) Bell, R.(1982).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in runaway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 30) Bertalanffy, L. von.(1968). *General Systems Theory : Foundation,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 Brazillier.
- 31) Block, J. H.(1973). Conception of sex role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

- can Psychologist* 28, 512-516.
- 32) Deacon, R.E. & Firebaugh, F.M.(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33) Diekelmann, N.L.(1976). The young adult-the choice is health or illnes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6, 1272.
- 34)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 Norton.
- 35) Elder, G.H., Jr.(1980). *Family Structure and Socialization*. New York : Arno Press.
- 36) Faul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024-1027.
- 37) Filsinger, E. E.(1983).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 A Sourcebook for Family Therapy -*. Beverly Hills/London/New Delhi : Sage Publication.
- 38) Fristad, M. A.(1989). A comparison of the McMaster and Circumplex family assessment instrum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259-269.
- 39)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L.(1984).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 174-183.
- 40) Gates, A. I.(1970). *Educational Psychology*(3rd Ed.). MacMillan.
- 41) Giuli, C.A. & Hudson, W.W.(1977). Assessing parent-child relationship disorders in clinical practice :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Fall), 77-92.
- 42) Green, R. G., Kolevzon, M.F. & Vosler, N. R.(1985). The Be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 Separate, but equal ? *Family Process* 24, 385-398.
- 43) Hall, C.S. & Lindzey, G.(1978).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44) Hampson, R.B., Beavers, W.R. & Hulgus, Y.F.(1988). Commentary : Comparing the Beavers and Circumplex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7, 85-92.
- 45) Harford, T.C., Wills, C.H. & Deabler, H.L.(1967). Personality correlates masculinity-femininity. *Psychological Reports* 21, 881-884.
- 46) Hendrick, J.(1975). *The Whole Child : New Trend in Early Education*. Saint Louis : The C. V. Mobsy Co..
- 47) Kelsey-Smith, M. & Beavers, W.R.(1981). Family assessment :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amily system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3-12.
- 48)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49) Lavee, Y. & Olson, D.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 50) Lazarus, A.A.(1968). Learning theory and the treatment of depres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6, 1968.
- 51) Lazarus, R.S.(1977). *Personality and Adjustment*.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 52) Lee, C.(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5/ 27, 73-85.
- 53) Lewis, J.M., Beavers, W.R., Gossett, J.T. & Phillips, V.A.(1976). *No Single Thread :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 Brunner/Mazel.
- 54) Masterson, J.F.(1968). The psychiatric significance of adolescent turmoi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4, 1549-1554.
- 55) McDonald, G.W.(1977). Parental identification by the adolescent : A social powe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Nov), 705-719.
- 56) Medinnus, G.R. & Johnson, R.C.(1976).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2n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 57) Melson, G.F.(1980). *Family and Environment-An Ecosystem Perspective*. Minneapolis : Burgess Publishing Co.
- 58) Morris, C.G.(1986). *Psychology : An Introduction*(5th ed.). NJ. : Prentice Hall.
- 59) Mussen, P.H.(1961).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ts of masculine sex-typing in 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Monographs* 2-506, 75.
- 60) Olson, D.H.(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

- ses(PP.104-136). NY/London : The Guilford Press.
- 61) Olson, D.H.(1985). Commentary : Struggling with congruence across theoretical models and method. *Family Process* 24, 203-207.
- 62) Olson, D.H.(1991). Commentary :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III. *Family Process* 30, 74-79.
- 63)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N.
- 64) Olson, D.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III.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65)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3-28.
- 66) Olson, D.H., Sprenkle, D. & Russel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3-28.
- 67) Perosa, L.M. & Perosa, S.L.(1990). The use of bipolar item format for FACESIII :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 187-199.
- 68) Portner, J.(1981).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 Interaction types and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69) Russell, C.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8, 29-45.
- 70) Shaffer, H.F.(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71) Spielberger, C.D., Gorsuch, R.L. & Lushene, R.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72) Stierlin, H.(1974).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 Quadrangle.
- 73) Ullmann, L.P. & Keasner, L.(1975). *A Psychological Approach to Abnorm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74) Walters, J. & Stinnett, N.(1971). Parent-child relationships :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Feb.), 70-111.
- 75) Walters, J. & Walters, L.H.(1980). Parent-child relationships : A review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Nov.), 817-823.
- 76) Wolman, B.B.(1973). *Dictionary of Behavioral Scienc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